

지역 소식통

정읍시-특성화고 3개교

맞춤형 인재 양성 맞춘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20일 관내 3개 특성화고등학교와 MOU를 맺었다.

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일자리지원센터와 글로벌 혁신고, 제일고, 칠보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주형 미래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여 졸업 후에도 고향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튼튼한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됐다.

각 기관은 앞으로 취업 지원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 주내용으로는 지역 우수 기업 취업 연계 비릇, 현장 중심의 직무 교육, 진로 탐색 과정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생생한 구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무 위주의 훈련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지역 내 채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창군이 대형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해 20일 유관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고창군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육군 제8098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고창군 자율방재단, 고창군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 고창지구협의회 등 10개 기관·단체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합동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최근 빈발하는 지진 발생 상황을 시작으로 건물외 연쇄 붕괴와 대형 화재, 특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토사 유출까지 겹친 최악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고창 지역 남동쪽 3.2km 지점 내륙에서 규모 6.7의 강진 발생을 가정해 시작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 인기

기적의 놀이터·천사히어로즈 등 주요 명소 연결 수단으로 활용... 방문객에 큰 호응



이다. 인근에 국민여가캠핑장도 조성돼 있어 숙박과 놀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임산물체험센터,

정읍시립박물관까지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 열차가 이들 시설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면서 지역 명소 간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

이용 요금은 만 19세 이상 성인 6000원, 만 7세 이상 청소년 5000원, 만 7세 미만 유아 3000원이다.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 정읍시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각각 1000원씩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탑승권은 천사히어로즈 매표소에서 아침 9시 40분부터 발권할 수 있다. 늦어도 매회 출발 5분 전까지는 표를 끊어야 탑승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정 운영의 모든 과정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열린군정 생방송 군정' 실현 공약 발표

군 주요 회의·정책 결정 과정·행정 절차 등 온라인으로 공개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조국혁신당)는 20일 '군민이 군수다'라는 군정 철학을 전면에 내걸고, 군정 운영의 모든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열린군정·생방송 군정'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군정은 군수의 것이 아니라 군민의 것”이라며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라면 모든 과정이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제는 군민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군정 운영 전반을 '실시간 공개 시스템'으로 전환해 예산·계약·정책 추진 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언론·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후보는 우선 군정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생방송 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회의와 정책 결정 과정, 행정 절차 등을 군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행정'을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또한 수의계약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예산 사용내역을 실시간 공개하고, 특정업체 풀린과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정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아울러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군민·언론·시민단체의 행정

감시와 정책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요 현안을 군민과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숙의 시스템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후보는 분기별 '생방송 군정 보고회'를 정례화해 군정 성과와 문제점, 예산 집행 현황 등을 군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민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단한 군정, 보여주지 않는 행정을 끝내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군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너진 고창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군민기본소득 500만원 시대와 함께 군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고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폭염 대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응급실 운영 의뢰기관 연계

부안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뢰기관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온열질환에는 열부종, 열경련, 열실

신, 열탈진, 열사병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엔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며, △시원하게 지내고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 △폭염특보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 어르신, 만성질환자들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부안면 애향청년회(회장 김병삼)가 지난 19일 오후5시 기호1번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심덕섭·이원택 후보’ 지지선언문 발표

고창군 부안면 애향청년회

고창군 부안면 애향청년회(회장 김병삼)가 지난 19일 오후5시 기호1번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부안면 애향청년회 김병삼 회장을 비롯해, 김투호 초대회장, 박상남 직전회장 등 임원진 10여명은 심덕섭 후보와 환담을 가졌다.

부안면 애향청년회는 87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부안면 최대 청년 단체다. 애향청년회는 지지선언문에서 “심덕섭 후보의 5대 핵심약속 등이 탄탄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드린다”며 “또한 전북 도지사에 출마한 이원택 후보와 원팀으로 움직이며, 어느 시·군 보다 고창군이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애향청년회 모든 회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내 고향 내마을을 지켜가며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청년들의 응원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이재명과 함께 중단 없는 고창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더! 심덕섭에 많은 애정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공모 선정

부안 백산늑두꽃 사회적 협동조합, 취약계층에 정기적 밀반찬 제공

부안군 백산면 백산늑두꽃 사회적 협동조합(대표 박천호)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은 백산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40명을 선정해 자택까지 월 4회 정기적인 밀반찬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천호 대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취약계층을 돌보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촌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